

# 융복합지원사업 서비스 통합센터 개소

### 무주군, 전국 최초 신설... 신재생설비 본격 사후관리 나서

청정에너지 지립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무주군이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무주읍 반딧불시장 인근에 서비스 통합센터를 마련, 28일 현판식을 갖고 무주읍과 무풍, 설천면 지역 주택과 건물 등에 설치된 신재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알렸다.

서비스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융복합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중 무주군이 최초로, 무주군은 전국에 위치해 있는 참여기업(시공업체)들을 대신해 사후관리 전담업체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사후관리 대응 속도를 높여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통합센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점검은 물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에 관한 기술적인 상담도 진행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 설비를 주택 및 공공건물 등에 설치해서 전기나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무주



무주군은 무주읍 반딧불시장 인근에 서비스 통합센터를 마련, 28일 현판식을 갖고 무주읍과 무풍, 설천면 지역 주택과 건물 등에 설치된 신재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알렸다.

군은 지난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해 무주읍에 278곳, 2022년 무풍과 설천면 155곳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올해는 적상면과 안성면, 부남면 지역 377곳에 설치 중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에너지팀 김현수 팀장은 "사업이 시행된 지 2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 점차 관리·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나는데 설치 업체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다 보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통합센터에서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2024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의 전자기지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관광마인드 함양 위한 공직자 교육

### '무주 쿨 썸머 페스티벌' 개최 앞두고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등 모색

무주군은 28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는 7월 '2023 무주 쿨 썸머 페스티벌'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 내용을 미리 공유하며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등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 전 실·과·소·읍·면 소속 공무원 4백여 명이 참석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는 2023 무주쿨썸머페스티벌 류재현 총감독(문화기획자 & 전략가)이 맡아 대한민국 최초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전자음악(EDM Electronic Dance Music)이라는 주제로 △캠핑과



댄스가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서 무주 쿨 썸머페스티벌의 추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 감독은 "무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이 자라난 곳으로 산, 숲, 물, 환경, 반딧불이 등

이 매력 포인트"라며 "무주쿨썸머페스티벌은 무주의 이런 장점을 살리고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전했다.

또 무더운 한여름에도 시원한 장소적 특징을 활용해 음악바탕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특히 모기가 없다는 점도 무주의 강점으로 꼽힌다면서 무주쿨썸머페스티벌은 1박 2일 캠핑을 하며 최고의 전자음악(EDM)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파라다이스로서 무주군의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 무주쿨썸머페스티벌(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관광협의회)은 7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자연 속에서 음악과 댄스, 체험이 결합된 전자음악(EDM) 축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국내 최초 여성농업인 이동검진 버스 운영 개시

진안군은 국내 최초로 여성농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이동검진 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 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진안군의료원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진안군의료원이 운

영하는 검진버스가 6월 28일 상전면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지역별로 찾아가는다.

검진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51~70세 여성농업인 500명이며 검진비용인 20만원은 국비 90%, 군비 10%로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상으로 실시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28일 진안군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확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 협약

###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자부담 금액 일부 지원키로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는 28일 진안군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확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관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보급 확대해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여 및 탄소중립형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진안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민

(단독주택)에 대해 주민이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부담 금액의 일부 지원은 지원사업구역 외 지역은 진안군이, 지원사업구역 내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추진하게 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 협약 체결

장수군이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와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8일 군청회의실에서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 오승원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목재 관련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지원 교류, 국가 공모사업 등 각 기관의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목재 분야 연구개발사업, 목공예 협프로그래밍 교류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목재와 관련된 교육, 체험, 연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목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승원 목재가공지원센터장은 "목재 산업은 문화적, 산업적 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목재문화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는 "오늘 협약을 통해 장수군에서도 목재 문화가 활성화되고, 목재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백운농협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현판식 열려

진안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송미경)는 28일 백운농협 2층 회의실에서 백운농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백운농협 김연태 조합장,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치매사업 관련 공무원, 백운농협 전 직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2023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백운면에 위치한 백운농협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치매안심사업 자원을 발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진안군을 실현하기 위해 백운농협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번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백운농협의 전 직원은 올바른 치매 관련 정보 전달 및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치매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다.

송미경 센터장은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으로 여러 단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지역사회가 건강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남생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장수군은 지난 28일 뜬봉샘 생태공원 생태연못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의 새 둠집을 마련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는 물과 육지를 이동하며 서식하는 수륙생물로 4월부터 활동해 11월에 동면을 한다.

군은 유숙이 느리거나 물살이 약한 소류지를 선호하는 남생이가 우선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식생 토남을 설치하고 암석을 이용한 동면장소를 만들어 주는 등 안정적인 서식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